

교외 학습 한 달 넘게 수업 인정... '증빙은 허술'

누리집 신청...체험계획·예약 증명 없이 승인

실종 초등생, 1학기에 7차례 35일 체험 학습 신청

제주도로 학교 밖 체험을 떠난다면 초등학생과 30대 부모가 실종된 가운데 교외 학습 제도가 한 달 넘게 수업 일수를 인정하면서도 신청·증빙 절차는 허술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7일 광주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일선 초·중등학교는 현행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48조 등에 근거해 교외 체험학습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해당 제도에 따라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 동의를 얻어 교외 체험학습을 허가하며, 학칙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

올해 2월부터는 교육부가 내린 '오미크론 대응' 지침에 따라 초등학교는 교외 체험학습(가정학습 포함) 기간을 수업일수 190일의 20%(최장 38일)까지 인정하고 있다.

보호자인 학부모가 교외 체험 신청서 등을 제출하면 담임 교사 또는 학년 부장 보직교사가 승인한다.

학칙에 따라 근소한 차이는 있지만 교외 체험학습 신청서 양식은 대체로 ▲학생 기본 인적사항 ▲체험학습 기간 ▲보호자 성명·연락처 ▲동반가족 내역 ▲체험 목적·장소 등만 기재하면 된다.

신청서 제출 시에는 시간대·일자

별 체험 계획 또는 타 지역 숙박 예약 증명, 체험 프로그램 참가내역 등은 따로 증명하지 않아도 된다. 일부 학교에서는 국외 체류에 한해 여객기 탑승 예매 내역만 확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마저도 체험 신청 당일 또는 전날까지도 학교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승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학교 측은 학생이 등교할 때 체험 보고서를 제출하면 휴일을 제외한 체험기간을 수업 일수로 인정한다. 관련 근거가 없어 학교 측은 체험 기간 동안 학생의 상황, 위치, 체험계획 이행 내용 등을 파악하지 않는다.

실종된 조유나(10)양과 부모는 학교에 '제주도 한 달 살기 체험·가족 여행' 명목으로 지난달 19일부터 이달 15일까지 교외 체험 학습을 신청했다. 조양은 올해 들어 1학기에 만

교외 체험 학습(가정 학습 포함)을 총 7차례(수업일수 총 35일)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 일선 교사는 "자세한 일정이 아니라 지역 숙박내역 등은 신청서에 기입하지 않는다. 교외 체험 기간 동안 보호자가 학생을 관리할 수 있는지 여부 등만 확인한다"며 "코로나 확산 이후 학부모들이 가정 또는 교외 체험학습을 선호하는 분위기가 있어 대체로 승인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다른 교사는 "보호자 동의만 있으면 교외 체험 학습을 승인하고 있다. 일선 학교는 정해진 제도와 지침 내에서 운영하며, 체험 기간 중 관여하기 어렵다. 학교 책임으로 몰고 가서는 안 된다"며 "이번 사건처럼 '보호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도 있다.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김도기 기자

광산구 저소득층 긴급생활지원금 지급

내일부터...기초수급자 등 1만5000가구 대상

광산구는 불가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의 생계부담 완화를 위해 29일부터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정부 추가경정예산안 국회 의결일인 지난 5월29일을 기준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아동양육비를 지원받는 한부모가족이다.

광산구 지원규모는 약 1만5000가구로, 지원 금액은 급여자격,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1인 가구부터 7인 이상까지를 기준으로, 최소 30만 원부터 최대 145만 원이 지급된다. 가구원 수가 8인 이상인 경우엔 7인 기준을 적용한다.

광산구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지원 대상자에게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선불카드를 지급할 계획이다. 29일부터 7월5일까지는 5부제를 시행해 생년월일 끝 자리에 따라 월요일(1, 6), 화요일(2, 7), 수요일(3, 8), 목요일(4, 9), 금요일(5, 0)에 맞춰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야 한다. 7월6일 이후부터 8월 1일까지는 생년월일 관계없이 받을 수 있다.

카드 사용 기한은 12월 31일까지이며, 그 이후에는 잔액이 있어도 사용할 수 없다. 이와 함께 보장시설수급자에 대해서는 보조금 형태로 해당 시설에 1인당 20만 원을 현금 지급한다. /이동기 기자

동구 '사회적기업 육성' 우수 지자체 선정...광주·전남 유일

창업단계별 독자적 지원체계 구축 등 높은 평가 받아

동구는 고용노동부가 주관한 '2022년 사회적기업 육성 우수 지자체' 평가에서 광주·전남지역에서 유일하게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행정안전부 주관

'사회적경제 협력체계 구축사업' 2년 연속 선정에 이은 또 하나의 의미 있는 성과이다.

고용부는 매년 각 지자체의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성과를 평가해 우수지자체를 선정하고 이를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사회적기업 육성을 지원하고자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동구는 이번 평가에서 사회적기업 창업팀 발굴부터 사회적기업 인증까지 단계별 맞춤형 지원 체계 구축과 지역 현안을 사회적기업이 지역민과 함께 해결해 나가는 정책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김도기 기자

한국광기술원, 국제조명표준 선도 '자가 컨소시엄' 합류

자가 컨소시엄과 업무협약...표준화 생태계·기반 확보



한국광기술원이 LED조명업계 중심으로 사실상 국제표준을 선도하고 있는 '자가(Zhaga)' 컨소시엄 합류를 통해 제품 표준화와 상생협력을 추진한다.

한국광기술원은 27일 자가 컨소시엄과의 상생협력을 위해 한국에너지공단, 한국표준협회, 한국조명공업협

동조합, 한국전등기구 LED산업협동조합 등 4개 기관과 함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컨소시엄 명칭인 '자가'는 중국 '자가 폭포'에서 유래한다. 작은 물줄기가 흐르며 큰 폭포가 되듯, 비록 컨소시엄의 시작은 미미할지라도 중국에는 전 세계적으로 파급력을 확

대하길 바라는 열원이 담겨 있다. 자가 컨소시엄에는 오스람, 필립스, 파나소닉, 필립스스피드, 도시바, 트랄룩스, 줌토벨 등 글로벌 조명기업이 대거 참여하고 있다.

이번 협약은 광용량조명서비스 산업 전반의 진흥을 꾀하고, '자가' 사실상표준화 생태계·기반 확보'를 목적으로 추진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자가 사실상표준화 활동과 대응', '세미나, 심포지엄, 기타 연구발표회, 토론회 등 사업', '지속가능한 사실상표준화 활동이 가능한 생태계 조성', '우리나라 실정에 적합한 조명분야 친환경환경구축', '정보, 자료의 교류와 연구시설 장비의 상호 이용' 등이다. /권영만 기자

서구 어린이생태도서관 정무합동평가 우수사례 선정

서구 어린이생태학습도서관이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2022년(2021년 실적) 정무합동평가 정성 부문 '독서문화진흥 및 도서관 특성화' 분야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정부종합평가는 정부 차원의 유일한 자치단체 평가 제도로, 서구는 광주에서 유일하게 생태학습도서관의 특화된 생태체험을 주민들에게 제공하여 이용자의 만족도와 대출권수, 프로그램 참여자수를 지속적으로 제고시켜 온점이 크게 부각됐다.

특히, 아이들이 생태체험으로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생태 나드리(NADLI:NAture,Dream,Library)사업'을 추진하고, 지난해에는 광주·전남지역에서 유일하게 문화체육관광부 '특화도서관 육성 지원사업'에 선정됐으며, 전국 도서관 최초로 '생태도서관 탐험대', '푸른별 환경캠프' 2개 프로그램이 환경부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 지정제'에 선정되는 등 생태특화프로그램의 우수성과 신뢰성을 검증받았다.

또한, 어린이 생태 독서운동회, 어린이 생태동화 그림책 만들기 등 특화프로그램도 우수사례로 선정되는데 큰 역할을 했다. /박중배 기자

전남보건환경연, 병원체 검사역량 강화

시·군 보건소·의료원 미생물검사요원 맞춤형 교육



전남보건환경연구원은 코로나19뿐만 아니라 법정감염병을 신속히 찾아내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공무원 역량 강화 교육에 나섰다.

전남보건환경연구원은 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전남 22개 시·군 검사실 담당자 22명을 대상으로 '보건소·의료원 미생물 검사요원 교육'을 최근 3일간 실시했다. /박중배 기자

이번 교육은 질병관리청 승인성·식품매개감염병 관리지침과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중독 원인조사 시험법 지침에 따른 것이다. 질병관리청 관계자를 초빙해 집단식중독과 설사질환 의심환자 발생시 신속 대처를 위한 감염병 원인병원체 이론 및 검사법, 검체채취 및 취급, 감염병 진단 전담을 교육했다. /박중배 기자

무안소방, 스프링클러 미설치 공동주택 화재 예방 홍보

무안소방서는 관내 공동주택 화재 안전을 위해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화재 예방 집중 홍보를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번 홍보는 최근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노후 공동주택에서 화재가 잇따르자 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소방서는 설치 실태에 대한 전수

조사 후 ▲소방·입주자 대표 간담회 ▲화재안전 컨설팅 전담반 운영 ▲우리 집 안전점검의 날 운영 ▲책임 담당자 멘토링 지정 운영 등 실시한다.

소방서 관계자는 "관계인과 입주주민이 안전의식을 갖고 화재 예방을 위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무안=박태연 기자

농장직영 진남맹생이탕

농장직영

예약문의 : 010-3925-3842

염소탕
수육
오리탕
닭볶음탕

박 래 섭

010-6480-3842

전남 장성군 남면 못재로 221

061)395-7977